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연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정치부, 노동 담당
발 신 최저임금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넷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문 의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010-3940-2012/ 민주노총 우문숙 010-5358-2260/ 청년유니온 정준영
010-9920-6305/ 참여연대 안진걸 019-279-42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010-3093-1386
제 목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공동기자회견
날 짜 6.24(수) 오전11시 서울시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보 도 자 료

임시정부 수립 후 최초, 전국의 중소기업인청년학생노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재벌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인 상권 침탈, 기술탈취, 대리점·가맹점·협력업체 수탈 일삼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만 나오면 중소기업인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대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
 -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전경련·경총 해체하러!!
 -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6.24(수) 오전11시,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진행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8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단위의 중소기업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계(민주노총), 청년계(청년유니온)가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년 내내 재벌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인과 협력업체(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슈퍼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편의점·대리점 등을 수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만 되면 “중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대고 일부 중소기업인들을 방패막이로 악용해 범사회적 요구인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가증스럽다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

다!” 고 일침을 놓고, 우리 경제가 살 길은 동반성장밖에 없다고 선언했겠습니까.

3. 이에 6.24(수)일 오전 11시에는 6월 18일보다 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간절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며 중소기업, ‘을’ 살리기 단체, 청년, 학생,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9년 연속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재계나,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해버린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처지에서는 개인 소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사활적 요구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 영역 전반에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엄중히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 태도, 기조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할 일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 특혜·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안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기업,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경제 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실현을염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기자회견> (사회 : 안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소개
- 청년대학생 발언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중소기업인 발언 :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시민사회 발언 :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노동계 발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자 (홈플러스노조 오재본) / 중소기업인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 청년대학생(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 시민사회 (녹색연합 윤기돈)
- 퍼포먼스 :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 첨부 : 기자회견문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기업인,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과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 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정책으로 5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미증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으로 노동시장을 영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기업안정영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생존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 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도 중소기업인들이 걱정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철수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게 가하는 슈퍼갑질, 기술탈취, 이익수탈 등을 즉시 중단하면 됩니다. 당장 재벌대기업 본사들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고, 또 재벌대기업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부터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상가임대채보호법 추가 개정 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로는 최저의 임금도, 최저의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공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미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재벌대기업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께 “당신들도 시급 5,580원으로 1년, 아니 한달 만이라도 살아봐라!” 라고 절규해봅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 한달 116만원으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원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부디 사람이 존엄하고 노동의 대가가 귀하고 차우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경제에 ‘경제제민’의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기업인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기업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과 활력을 도모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의 임금도 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만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기업인,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자주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